

자료제공 : 2023. 11. 28.(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2133-7640
공공건축2팀장	임종현	2133-7633
조경과장	안수연	2133-2100
조경시설팀장	신재원	2133-2115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4쪽

서울시 환구단 정문 철제울타리 걷어낸다... 12월 '전면 개방'

- 서울광장 주변 보행친화공간 조성 전략 추진의 첫 시도... 공공공간 활성화
- 덕수궁~소공로 잇는 근대역사축에 위치한 환구단 정문 물리적 경계 해소
- 정문 주변 철제울타리 철거해 개방,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공간 탈바꿈
- 시 “고립된 문화재 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 기대... 관련 사업 지속 발굴”

- 서울시가 문화재·민간 건축물 등 저층부를 개방, 공공공간을 활성화 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덕수궁~소공동 사이 위치한 문화재 ‘환구단’ 울타리를 걷어낸다.
-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철제울타리 속에 갇혀 있었던 ‘환구단(원구단) 정문’을 12월부터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구단 정문을 비롯해 근대 문화유산 ‘환구단’을 더 쉽게,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사적157호이기도 한 ‘환구단’은 근대 역사(고종 및 대한제국) 축에 위치하며 역사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으로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의 성립을 대내외에 알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조성했다.

- 그 중 정문(문화재자료 53호)인 ‘원구단 정문’은 환구단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상징성을 지니며 1969년 우이동 옛 그린파크 호텔로 이전, 2009년 현재 위치로 이전 복원됐다.
- 시는 그동안 현재 민간 건축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진출입부에 시야를 방해하는 여러 물리적 경계요소로 인해 고립된 환구단과 그 정문의 고유 역사성을 살리고 시민들이 더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고자 이번 개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조선호텔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아름다워 속칭 “환구단 뷰”라고도 불리며 창을 통해 바라보는 풍경이 고즈넉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후기가 많지만 철제울타리로 단절된 정문(주 진입로), 열악한 주변 가로환경으로 환구단의 존재조차 모르는 시민도 많다.
- 이번 개방은 환구단 정문 개방을 위한 철제울타리 철거, 화재·안전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23.10.31.)를 통과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시는 ‘보행 중심’ 도시공간 재편, ‘정원도시 서울’ 정책 방향에 맞춰 환구단이 시민이 보다 자유롭게 오가고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는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정문 주변 철제울타리 철거 공사 등을 11~12월에 시행하고 연내 개방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주변

과 단절된 채 존재했던 환구단 경관을 확보할뿐 아니라 물리적 장벽 철거로 서울광장(광장숲)과 연계, 다양한 문화재와 건축물이 공존하는 ‘매력특별시 서울’로의 가치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중장기 계획으로 관계기관(부서), 문화재 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환구단 일대 열린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구단으로의 보행 연속성 강화는 물론 경관을 개선하여 관광명소로서 시민이 즐기며 찾는 공간이 되도록 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물리적 경계로 인해 그간 잊혀진 우리 고유의 문화재 환구단이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적 관점에서 덕수궁-서울광장-환구단이 보행 중심의 시민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환구단 정문 개방(안)

(현황)



(계획)



